



남원 도동지구대, 야간 우범지역 탄력순찰 실시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최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탄력순찰을 통해 체감치안도를 높이기 나섰다.

특히 관내 주요범죄취약지인 춘향골 체육공원, 물방개 워터파크 등에 순찰노선을 지정하고 주요 목지점에서 거점근무를 시행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이용한 위력순찰을 실시했다.

또한 관내 약국 등 코로나 관련해 범죄취약지를 찾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범죄예방을 위해 앞장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모양지구대, 공·폐가 집중 순찰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 모양지구대(대장 천광종)가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공·폐가에 대해 집중순찰을 실시하였다.

공·폐가 지역 내 순찰을 통해 성폭력, 청소년 일탈 등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고 위험·파손 시설물에 대한 사전 파악 등 공동체 치안 활동을 통해 범죄취약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완강기 체험·사용법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관내 사회적기업인 제너럴바이오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완강기 체험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완강기는 일반 건축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로 사용되나, 많은 사람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요령과 피난 및 대피 요령 ▲완강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김대근 금지119안전센터장은 "화재 시 완강기는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기구로, 평소에도 반드시 완강기 위치 확인과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극복하는 '자발적 나눔'

김제시 농업협동조합운영 협의회,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2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김제시는 24일 농업협동조합운영협의회(회장 이정용)가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코로나 환자와 치료 운영팀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양갱, 사과칩, 고구마 말랭이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였다.

삼성생명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는 대구지역에서 자리를 옮긴 120여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격리 치료 중에 있는 사실이며, 관련 운영팀 및 의료진 70여명이 상주하여 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정용 회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운영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입소자들의 쾌유를 위해 작은 성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 농업협동조합운영협의회의 기탁에 감사하다"며 "지역단체의 자발적인 나눔은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극복 홍삼제품 전달

진안군민들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자발적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진안라이온스클럽(회장 배성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의료원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 홍삼데일리 30박스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봉남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구슬땀'

김제시 봉남면(면장 박중운)은 24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동참하고자 봉남면 자율방역단(의용소방대, 복지기동대)과 함께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박중운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와 복지기동대로 구성된 봉남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봉남면 소재지에 위치한 음식점 등 상가를 직접 방문해 소독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시설 내 위생수칙에 대해 홍보했으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위로하기도 했다.

또한 고령의 어르신이 집안으로 생활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은 상황 종료시까지 시설책임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매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방역활동에 동참한 김귀용 의용소방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이번 방역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쁘다"고 전했다.



박중운 봉남면장은 "안전하고 안심한 봉남면이 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1일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앞장선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모든 기회, 즉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법으로 내달 5일까지 15일동안 진행된다.

무진장소방서는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북부지침에 따라 △구내식당에서는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와 식사중 대화금지 등 전환하고 원활한 식사진행을 위해 점심시간 시차운영에 돌입 △근무 및 대면업무 시 마스크 착용 및 간단한 민원 접수는 가급적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 이용권장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금지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적극 추진을 시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경찰서, 코로나19 예방 투명 가림막 설치

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4일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찰직원과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투명 가림막은 가로 180cm, 세로75cm 크기의 아크릴재질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단부에 작은 공간을 두어 서류 및 방문증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진안경찰서는 입초뿐만 아니라 민원실에서도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민원인 방문 시 손소독제 사용과 발열체크를 하며 주1회 청사소독을 하고 있다.

고치영 경비팀장은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며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진안서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여 방역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지자체와 유흥시설 합동점검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집합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 등 제한명령 이행 실태 확인 및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방에 대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소독 등 7가지 방역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및 현장지도 수용여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